

# 大邱住居建築 30年史

李 重 雨

(啓明大 建築工學科 教授 工學博士)

인간은 일정한 기후조건에 적응하고 외부로부터의 방어를 위하여 은신처를 만든다. 이는 인간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원형적 공간개념의 발생동기이며 건축공간은 자기보존의 생리적 욕구의 토대위에 자기보호를 목적으로한 원형적 형태(Archetype)에서 출발하여 시대적으로 전형적 형태(Prototype)로 변용되어 왔다.

우리민족의 전형적 생활공간은 일찌기 농경시대의 정착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정착생활에 필요한 노동력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이행을 가져왔으며 농경행위는 농작물의 생산과 저장을 위한 생활기술의 발달과 함께 풍수나 기후등과 관련된 자연의 運行現象을 중시하고 나아가 자연을 숭상하는 자연숭배관을 낳았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우주관이나 자연관은 이러한 자연숭배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조화 중시사상은 생활뿐 아니라 우리 생활공간의 형성에 있어 기본원리로 인식되어 왔으며 집과 마을의 구성은 소우주라고 하는 기본개념에 근거하여 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공간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여 왔다. 농경생활을 고려한 背山臨水의 환경설정과 子座午向과 배치방법은 이러한 문화적 의미의 대표적 특성으로서 도시화와 현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변용이 이루어진 오늘날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내재되어온 한국적 정서로 이해된다.

대구 주거건축은 이러한 정서적 지속성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생활의식과 생활환경 그리고 생활형태의 변화에 따라 변용된 생활공간으로서 유지되어 왔으며 근대이후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나름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확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30년간은 주거건축은 우리주거의 지속성과 현대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변용되어온 현대주거건축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를 통하여 변용되어온 대구현대 주거건축의 형성과정을 정리하여 보고 시기별 작품의 경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1960년대의 주거건축

1960년대의 단독주택은 주로 韓屋平面型과 折衷型의 일층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韓屋型의 경우 각 실은 마루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출입은 마당 또는 대청을 통하여 연결된다. 부엌은 마당보다 낮은 봉당형식으로 마당에서 직접 출입되며 안방과 부엌 사이에 사잇문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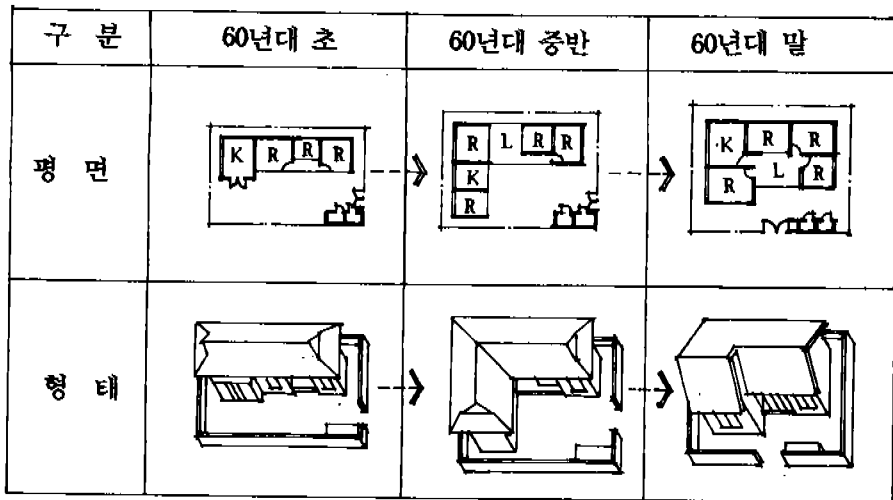
안방에서는 취침뿐 아니라 식사, 휴식, 취미 및 담화의 행위가 이루어지며 가족간의 담화와 손님의 응접등 대부분의 행위가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생활양상의 本然性을 보여주고 있다.

折衷型은 마루방을 전면으로 뒷면에 작은 방이 생기고 이 방이 부엌과 연결되어 겹으로 실이 배치된다. 이때 부엌은 연탄을 주 연료로 하는 재래식 부엌이 대부분이며 욕실과 변소는 대문간에 위치한 제거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마당은 주생활 영역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생활공단의 중심이 되어 왔다. 각 실은 마당을 통하여 출입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家禮行爲와 가사작업 등이 수행되었으며 마당 한편에는 빨래터와 장독대를 두었다. 그리고 대문과 안방을 연결하는 매개과정으로서의 마당은 손님응접과 격식이 오고가는 활동적공간이자 개인뿐아니라 가족전체의 생활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妙合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된다.

마루는 마당과 방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서 취침과 응접 등 안방의 기능이 여과되는 보조적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어졌으며 부엌은 주부의 가사활동공간으로 조리를 비롯하여 세탁이나 세면 그리고 목욕 등의 부수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한편 60년대 후반에는 실내로 화장실이 이동되어 위생행위가 실내로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였으며 대다수의 부엌은 복합용도로 활용 되었다.

1960년대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한옥의 기와지붕으로 평면형태에 따라 ‘-’자형, ‘ㄱ’자형의 모임지붕과 합각지붕이 대부분이었으며 창문은 목재와 창호지 그리고 유리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주택의 구조 또한 목구조로서 전면출입구 부분에 안방들을 두던것이 점차 1-2단의 기단으로 변형되었고 타일에 의해 장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담장과 대문은 시작적 차단과 방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문의 형태는 문설주와 기둥의 단순한 구성으로 이루어 졌다.(그림 1)



<그림 1> 1960년대 주택형태의 변화

1960년대 대구의 주요 주택지는 주로 동인동 국민주택지와 만촌동 교수촌 그리고 파동 국민주택지를 중심으로 군집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국민주택은 마루바닥의 높이가 아주 낮은 접지형 주거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주요 주택작품으로서는 한옥의 양식을 콘크리트로 표현한 윤영도씨 작품인 무림제지 이무일씨주택(현 한식부페, 1966)과 고만권씨가 설계한 OB맥주의 권두현씨 주택과 장경일씨 주택 그리고 김인호씨 설계의 삼덕동 강사장택등이 있으며 60년대 후반에는 현재 건물바위박물관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김하자씨 설계의 주택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역 아파트의 역사는 총무처주관으로 대한주택공사가 1966년에 남구 대명동에 건설한 공무원

아파트에서 비롯된다. 이는 1958년에 건설된 서울의 중압아파트에 비해 약 8년가량 늦은 시기이다. 당시의 아파트건설은 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의 하나로 전쟁후의 주택수요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의 재개발 사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산업화에 의한 콘크리트, 철, 유리등의 건설재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이와함께 이년후인 1968년에는 대구최초의 시영아파트로서 고만권씨가 설계한 3층규모의 성당시영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는 일반인의 수용을 고려한 집합주택 건설의 본격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당시의 난방 및 급배수설비의 기술수준은 이와같은 시스템의 변화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단독주택의 설비체계를 고층주거에 적용함으로써 연탄가스과 환기등의 환경적문제와 부엌의 아궁이 사용 등과 같은 사용상의 불편함이 유발되었고 기존의 接地住居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고층주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그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당시의 일부 기술자 및 건축가들은 이러한 설비와 공간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하여 1970년대에는 아파트의 공간적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 2. 1970년대의 주거건축

1970년대의 단독주택은 1972년 목조건물이 금지되면서 시멘트 제품의 조적식구조의 점집형 주택으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생활형태는 '60년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마루가 거실의 역할을 다하여 가족단위의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으며 식당방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식사행위뿐 아니라 취침행위도 병행되는 복합용도공간이었다. 부엌은 보일러의 개선으로 거실과 같은 바닥높이로 이루어졌으며 석유난로등의 편리한 취사도구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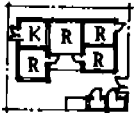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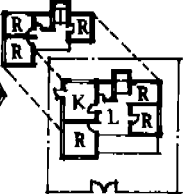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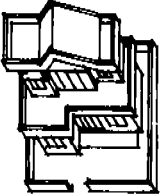
특히 '60년대에는 각각의 공간으로 외부에 두었던 화장실과 욕실이 본체내부로 들어와 통합되었으며 마루공간이 외부와 차단됨에 따라 별도의 현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위생 및 난방설비의 개선과 함께 생활습관도 변화하여 마당에서 행해지던 많은 생활행위가 실내로 유입되었으며 마당의 기능축소와 함께 정원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私의行爲가 강조되는 개성적 생활의식이 두드러지면서 室이 증가되고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생활내용들이 점차 분산되었다. 따라서 안방은 부부의 사적공간으로 단순화되는 한편 각실과 유기적 관계를 두고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TV시청등의 많은 가족행위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보수적성향이 지속됨으로써 안방은 주생활공간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방의 보조적 공간으로서 마루방은 근대화과정에서 합리적 생활양식이 부각되면서 안방에서 행해지던 가족회이나 담화 휴식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단순한 전이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변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당방이 생겨나면서 마루방의 식사행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안방-마루-식당방의 연계성에 따른 기능적 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루와 식당은 안방의 기능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60년대 후반에 주택의 뒷편으로 후퇴되었던 재래식 부엌이 취사연료의 변화와 입식화의 영향으로 식사나 간단한 응접과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용되는 경향은 부엌이 주부만의 절대적 영역에서 가족의 영역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형태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주택의 지붕유형은 철근콘크리트조에 의한 평지붕이 적극적으로 채택되었으나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단순하게 혼합된 절충식 양식과 경사지붕의 기울기를 달리한 비대칭 박공지붕이 성행하였으며 일부에서는 평지붕의 옥상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문의 주요 변화현상은 재료

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당시의 보편적 건축자재였던 돌이 문실주의 마감재료로 사용되었고 일부계층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와 경제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벽면을 화강석 견치석쌓기로 수평장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평지붕에 나무대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처마의 디자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 2>

구 분	70년대 초	70년대 중반	70년대 말
평 면			
형 태			

<그림 2> 1970년대 주택형태의 변화

전반적으로 1970년대 대구의 주택작품에서는 이전에 비해 표현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사용재료 또한 벽돌과 타일 그리고 콘크리트제치장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당시에는 앞산아래 대명동을 중심으로 많은 고급주택들이 건설되었는데 '70년대 전반기의 주요 작품으로서는 당시의 전형적인 상류주택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박두용씨 설계의 대현동 진갑дук교수택(1970) 김현산씨가 설계한 삼덕동 영화직물 사장택(현 음식점서태후) 그리고 대명동의 매일신문사사장택 등을 들 수 있으며 김화자씨가 설계한 삼덕동 태양열주택(1973)은 대구최초의 태양열 주택으로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합동건축이 설계한 금복주사장택 또한 당시 주택의 대표적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는 대규모의 주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대명동의 경북광유 박진희씨 주택(서울에서 설계, 197 )은 안방에 부속된 내실전용 욕실을 두는 평면 시스템을 대구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영향을 주었고 대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주택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이 중 연합건축이 설계한 삼덕동 윤경보씨주택과 이중우씨가 설계한 문교수택(1977)과 최전무택(1978) 그리고 기하학적 평면구성이 돋보이는 임팔암씨의 작품인 대명동 강사장택(1979)등을 대표적 작품으로 들 수 있으며 합동건축에서 설계한 경북도지사 공관(1979)은 그 기능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택의 텍스트적 역할을 함으로써 대구지역 주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60년대 후반부터 기술적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구지역의 아파트 건축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윤옥씨가 설계한 동인시영아파트(1970)를 시작으로 동구아파트와 큰고개아파트(1974) 그리고 동신아파트(1975)등이 건설되면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큰고개 아파트는 개량온돌이 시공됨으로써 재래식온돌이 세대별 집중식보일러난방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일진씨가

설계한 대봉동의 한일맨션(철거되었음, 현 한가람맨션 위치)은 아파트의 형식에 '맨션'의 이미지를 결합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고급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70년대 후반은 민영 건설업체가 본격적으로 아파트건설에 참여하여 아파트의 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윤옥씨 설계의 효목주공아파트(1977)와 김인호씨가 설계한 한도맨션(1977)을 비롯하여 최초의 10층 이상 아파트로서 건설된 대봉동의 청구아파트(1978)와 당시 단위세대별 최대의 평수(90평)를 기록한 이성씨 설계의 대명동 정우맨션(1978), 합동건축이 설계한 대명동 경일아파트(1978), 대봉동 청운맨션(1978) 그리고 현대건축이 설계한 대명동 동신점보맨션(1979)등의 작품이 선보이게 되었다.

### 3. 1980년대의 주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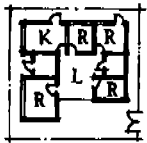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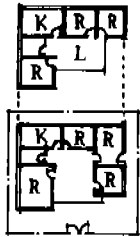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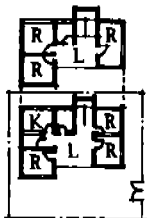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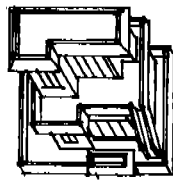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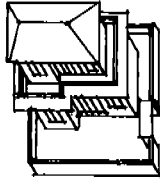
전통적 생활의식에 근거하여 위계적 단위실 구성을 이루었던 60년대의 주택은 '70년대의 산업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에 기인한 내부실의 증가와 마루방 중심의 결집형태로 변화해 오면서 이층 다락방에서 비롯된 층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점차 층별 분화형의 주택 신축빈도가 높아지면서 '80년대에는 외부계단 분리형의 평면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주택들은 실용성과 경제적 의식에 근거하여 일층과 이층을 분리하여 이층을 임대하거나 일층의 잉여방을 임대하는 음성적 임대주택이 증가하였다. 이때 화장실은 대문간에 두고 외부 출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이층에도 화장실을 두고 방을 부엌으로 개조하는 등 많은 현실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다세대주택의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이층 단독세대의 임대주택이 양성화되었고 다원적 측면의 생활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거형식을 유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가증된 실의 기능분화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편중되어 있던 대다수의 생활공간은 분산되지 않은 채로 변용되어져 왔으며 마루방의 위치 및 기능 또한 안방의 보조적 공간으로서 본래의 생활공간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안방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지고 종래의 대청공간은 거실공간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한편 실내의 강제적 공기순환 방식이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욕실에서 행해지던 세탁등의 행위는 주로 다용도실로 모아졌으며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은 배관설비의 조건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60년대의 산업화 시작이후 새로 유입된 다양한 재료와 사회, 문화적 환경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다원화된 형태적 감각은 주공간 양식의 계속적 변용으로 이어졌다. '70년대에 선호되었던 평지붕은 '80년대에 계속 유지되었으나 전통적 양식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 현대적 기능에 전통적 감각이 가미된 다소 경직된 디자인으로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지붕의 가장 자리인 난간부분의 수직면을 경사면으로 변형하고 기와를 얹은 눈썹지붕의 형태를 들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평지붕의 가장자리를 그대로 두고 중앙부에 박공지붕을 두어 기와를 얹은 절충양식과 순수한 모임빛 박공형태의 기와지붕도 유행하였다.<그림 3>

1980년대에는 경제적 수준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택의 질 또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의 주요 주택들은 주로 수성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박두용씨가 설계한 대명동 이문호교수택(1980)을 비롯하여 서보광씨의 범어동 김사장택(1980), 만촌동 이법원장택(1981), 대명동 이변호사택(1983) 그리고 김무권씨의 삼덕동0씨주택(1982)과 강정공씨가 설계한 성백희주택(1983), 합동건축의 동인동 L씨(198 ), 정의용씨가 설계한 만촌동의 아버지택(1984) 그리고 이태수씨의 김태호씨주택(1984)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주요작품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은 모임 또는 박공형태의 단순한 기와지붕과 외장재의 붉은벽돌사용, 그리고 주차공간을 위한

스킵플로어(SKIP FLOOR)형식의 공간체계등으로써 당시의 정서적 성향과 생활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80년대 초	80년대 중반	80년대 말
평 면			
형 태			

<그림 3> 1980년대 주택형태의 변화

이와달리 1980년대 후반의 일부작품에서는 재료사용과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는데 정의용씨가 설계한 형님대(1986)은 적삼목과 백색본타일에 의한 외관구성과 口자형 평면구성을 보여주며 이정호씨가 설계한 베리파스의 집(1989)은 붉은벽돌을 이용한 독특한 외관과 7자형 홀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당시의 주택설계는 설계자의 개인적 취향뿐 아니라 전통형식에 대한 재해석과 공간구조 및 재료사용 그리고 형태구성에 대한 나름의 연구와 실험적 표현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추후될 실험적 작품과 새로운 건축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파급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부동산의 과열현상에 기인하여 주택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편향된 시작이 확산됨으로써 대중적 주거문화가 다소 침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 1980년대의 아파트건축은 향상된 설비시설과 가사자동화(HOME AUTOMATION)시스템등의 편의시설 발달과 부동산 과열경기로 인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주택의 공급 및 건설에 관한 규칙과 규정등이 제정되어 아파트의 분양방법이 정착되는 시기였다. 구조적으로는 기존의 가구식 라아멘조에서 보와 기둥이 없는 벽식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층고가 낮아지고 면적의 효율성이 향상되는등 합리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잇점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0년대 전반기의 주요 아파트건축으로서 이성씨가 설계한 복현동 현대아파트(198)와 김화자씨의 작품인 남산동 솔라맨션(1983) 그리고 범어동의 우방향급1차아파트(1985)등을 들 수 있으며 후반기에는 환경건축이 설계한 청구광장타운과 효성타운(1988), 서종달씨가 설계한 상아아파트(1987)와 윤옥씨가 설계한 신세계아파트(1989) 그리고 수성구의 장원맨션(1988)등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본격적인 아파트주거 시대를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주거건축의 30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생활의 합리화가 추후되고 기능분화가 정착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주생활의 본연적인 생활내용이 유지되어 온 관계로 생활공간의 본연적 형태

가 지속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거건축의 형태는 구조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여 왔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경제성과 합리성 추구의 획일적 경향으로 인하여 형태의 단순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다.<그림 4>

구 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평면 형태					
평면 구성	마 당	'을'의 개념 -->각실의 출입, 가사작업(주택의 생활공간) -->시각적개방(주택의 외부공간)-->			
	안 방	부엌과 인접, 행위의 집중 -----> 식, 침 분리유도 -----> 침실 + 욕실 ----->			
	마 루 방	뒷마루 -----> 마루, 대청 -----> 입식가구 -----> 거실화 ----->			
	부 욕	재래식(붕당), 취사/난방겸용 -----> 입식구조(싱크대) -----> 식당, 부엌 ----->			
	현 관	마당에서 각실출입 -----> 마루문 -----> 현관발생(돌출형) -----> 거실일부(전실형) -->			
	변 소	외부(대문간) -----> 욕실, 변소 -----> 욕실, 변소(화장실) ----->			
	임차공간	잔여방 임대 -----> 음성적 임대 -----> 계획적 임대 -----> 다세대주택 법제화 -->			
형태 구성	지 붕	기와지붕(모임, 합각지붕) -----> 박공지붕, 평스라브 -----> 합각, 평스라브, 눈썹지붕 -->			
	창 문	목재출창 -----> 알루미늄창 -----> 발색알루미늄 -----> 고정창, 돌출창 ----->			
	처 마	서까래 돌출 -----> 콘크리트처마 돌출장식 -----> 철재난간 -----> 스텐레스난간 -->			
	기 단	뒷마루 -----> 기단발생(타일붙임) -----> 전면테라스 ----->			
	대 문	한식기와 대문 --> 단순문주형 --> 스라브식 -----> 붉은벽돌, 석재, 기하학적 형태 -->			

<그림4> 주택평면의 변화과정